

계간지 '시와사람' 가을호 '요즘의 5·18문학, 안녕하십니까?' 좌담회

# “5월 정신 담아내는 다양한 ‘그릇’ 만들어야”

제도화되어 가는 오월로 인한 인식의 경직성, 여기에서 벗어나는 문학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창작의 그릇'을 달리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 매년 오월문학제에 출품되는 '5·18문학' 작품 상당 부분은 창작 방식과 접근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평을 받는다. 기계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서 탈피해 시대를 넘어 정신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광주에서 발간되는 시 전문계간지 '시와사람' 가을호(통권 101)가 5·18문학의 현황과 오늘을 진단하는 좌담회 특집으로 다뤘다. 시인인 박관서 전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 사회로 '요즘의 5·18문학,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지역 출신 작가들이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앞서 '시와사람'은 얼마 전 통권 100호라는 의미있는 결실을 맺었다. 96년 창간 당시만 해도 문예지들이 폐간하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대표인 강경호 시인은 문예지 발간에 팔을 걷었다. 5·18 민중항쟁의 여파로 분노, 절망, 패배의식이 뒤섞인 광주문단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심사였다. 그러나 창간 1년만에 IMF로 존폐의 위기를 맞아 선산을 팔아 난관을 극복한 일화는 유명하다.

강 대표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처럼 젊은 패기 하나로 문예지를 창간한 후 지령 100호를 맞는 감회는 그동안 문예지를 발행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돌보지 못했던 나에게 위로하는 마음이 크다”며 “30대 후반의 청년은 어느덧 60대 중반에 이르렀다. 문예지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무모한 도전이 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좌담회에는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손병현 소설가, 고영서 시인, 양인자·임지형 동화작가가 참석했다.

이들 작가들은 올해 모두 5월을 모티브로 소설과 시 그리고 동화집을 펴낸 바 있다. '솔 만한 놈이 나타났다' (손병현), '연어가 돌아오는 계절' (고영서), '오월의 어린 시민군' (양인자), '영화 속 아이' (임지형)가 그것.

박관서 시인은 “작품 중심의 읽기를 통해 문학



특집 좌담회에 참석한 고영서 시인, 임지형 동화작가, 박관서 시인, 손병현 소설가, 양인자 동화작가. (왼쪽부터)

## 박관서·고영서·손병현·양인자·임지형 작가 참여 최근 통권 100호 발간도... 지역작가 조명·신인발굴 기여



강경호 '시와사람' 대표

현장의 담론과 새로운 창작 동기, 미래 방향성 등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좌담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프랑스 사회학자이자 문인인 피에르 부르디외가 지적한 '기계'의 의미를 예로 들며 자칭 '5·18문학 기계'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고영서 시인은 몇 년 전 제주도에서 전국문학인대회를 했을 때 현기영 작가의 예를 들었다.

“현 선생님은 제주 4·3에 대해 될 수 있으면 후배들이 많이 썼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신 자신이 썼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써달라고 했는



데, 광주도 다르지 않다는 얘기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양인자 동화작가는 “각기 다른 경험, 각기 다른 서사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온다”며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지키는 내에서는 다양한 변주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월 문제를 확장시켜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견해도 나왔다. 손병현 작가는 고영서 시인의 시 '연

어가 돌아오는 계절'에 대해 “노동의 문제, 사할린, 세월호로 확장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작품이 어른 역할을 해준다”는 생각을 하는 임지형 동화작가는 “다양한 반면에서 저마다 다른 '그릇'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문학'의 기계성을 벗어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좌담에 참석한 작가들은 서로의 작품에 대한 평도 공유했다. 향후 완성된 작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견해에선 선후배들의 애정이 일컫는다.

“손 작가의 소설을 읽으면서 젊은 후배가 이런 작품을 하니까 등 두드려 주고 싶고 밤 한 번 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 작가의 동화 중에서 오월 이야기를 쓴 단편을 몇 편 읽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장편이라서 반가웠고요. 임 작가 동화의 모티브가 된 영화 '낙화진향'을 보았는데 직접 출연하신 줄은 몰랐네요.”(고영서)

“고영서 시인은 생활인에서 연어를 같이 봤는데 같은 것을 봐도 무엇을 지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죠. 또한 손 작가 작품집은 이전 출간됐을 때도 관심 가지고 읽고, 이번에 나온 작품집도 당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반가운 생각이 들었죠.”(양인자)

손 작가는 임 작가의 '영화 속 아이'에 대해 포스트 5·18이라고 평했다. 오월 작품은 대체로 현장성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구성을 새롭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였다.

이번 호에는 강나루의 포토에세이, 신작시, 한희원의 예술산책, 이 시집을 주목한다 외에 신인상 당선작 '패턴' 외 4편(사·홍성남), '자연은 그대 로일 때 아름답다'(수필·윤명희) 등을 만날 수 있다.

한편 101호를 발간하는 동안 '시와사람'은 한국문학을 빛낸 우리지역 작가들을 연구하고 가능성 있는 신인들을 발굴하는 의미있는 작업을 해왔다. 아울러 음식, 판소리, 종교, 유학, 인물 등 다양한 분야의 호남정신적 요소를 추출해 '호남정신사'를 연재하기도 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역사 속 질병과 인간...' 강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다음달 1~15일 매주 화·수

우리의 조상들은 어떤 방식으로 질병을 이겨냈을까?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질병을 극복했는지를 인문학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강좌가 열린다.



박형철 전문의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김덕진)은 '역사 속 질병과 인간, 그리고 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주 화·수요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다목적강당에서 제10기 역사문화시민대학을 개최한다.

먼저 9월 1일 첫 번째 강좌는 전종준 하나통합의원 원장이 '건강과 질병의 이해-치유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를 강의한다. 이어 7일 백수인 조선대 명예교수가 '현대사 속의 질병'을 주제로 시민을 만나며, 8일에는 최완욱 광주장애인인권연구소 소장이 '재난으로 바라 본 사람과 인권'에 대해 이야기한다. 네 번째 강좌는 14일 박형철 예방의학전문과가 '감염병과 공공의료, 도시의 미래'를 강연한다.

마지막 15일에는 소록도와 고흥 일대를 둘러보는 문화탐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착순 40명, 참가비는 2만원(후원회원 1만원). 희망자는 31일까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062-234-2727)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 영화 센터 구축 모색 광주영화영상인연대 31일 포럼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김지연)는 오는 31일 오후 2시~4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영화포럼 : 지역영화를 위한 전담기구·영화센터 구축방안' 포럼을 개최한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와 광주시의회가 공동 주최,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광주영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광주영상영화진흥조례'에 따른 영화센터 건립 과정에 대한 논의를 펼치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홍성원 서울영상위원회 사무처장이 첫 발제자로 나서 '지역영화 전담기구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제하며, 김익석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가 '지역 영화센터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발제 후 지정토론에는 김나운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장을 좌장으로 양종근 한국영상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안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상임이사(전 광주독립영화관 관장), 이순학 다큐멘터리 감독 등이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 광주시의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전은재 기자 ejf621@kwangju.co.kr

## 팬 플러트 연주 동호회 '팬 나르샤' 27일 서구문화원 연주회

광주 서구문화원(원장 정인서)이 진행하는 2021 예술동호회 활동지원사업에 참여중인 팬 플러트 연주 동호회 '팬 나르샤'가 27일 오후 5시 30분 '바람의 소리, 자연의 소리, 팬 나르샤 팬플러트 연주회'를 서구문화원에서 연다.

'바람의 소리, 자연의 소리, 팬 플러트 연주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단체곡을 비롯해 '나를 두고 아리랑' 중주, '바람의 소원' 독주 등 모두 12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서구문화원 유튜브에

서 온라인으로 1시간동안 진행된다.

팬 나르샤는 이번 연주회를 위해 지난 5월부터 1주일에 한 번씩 모여 본격적인 준비를 해왔다. 지난 7월 22일에는 첫 예술상회(藝術相會)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시낭송과 시낭송 퍼포먼스 등 '詩·공감'의 낭송콘서트를 진행한 바 있다. 아귀레 팬 나르샤 대표는 "이번 합주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과 함께 힐링을 같이 나누고 싶다"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팬 플러트 연주 동호회 '팬 나르샤'의 연습 장면.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삼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아니로마트 062)373-3235	아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